

서 반 아 어 발 음 학 습 상 의 문 제 점

- 자 음 을 중 심 으 로 -

조 용 국

1 머 릿 말

흔히 서반아어가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들 하는데 이는 특히 미국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소리이다. 한 나라 말을 가리켜 배우기가 쉽다느니, 어렵다느니 하고 간단히 말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서반아어 발음에 관한한 이 표현은 어느 정도 수공이 가는 것이며, 특히 한국인에 있어 더욱 그렇 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글자에 한 소리라는 원칙과 사전에 발음 기호가 없는 것을 볼때 우선 접근이 쉬우리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초보 과정에서 한국 학생에게 발음 지도를 받고 있는 외국인 교수가 발음 문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간단히 1,2 시간에 발음 지도를 끝내며, 또 이렇게 배운 학생들의 발음이 자기 귀에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볼때,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이 일단 수공이 가는 것이라 하겠다. 바로 이 점이 서반아어를 배우는 한국인이 갖는 잊점이라고 하겠고, 한편 서반아어의 음성학적 연구가 한국에서 별로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현상은 비교적 단순한 서반아어의 발음 체계 - 특히 음절의 핵이 되고 또¹⁾ 비중이 큰 모음에 있어 - 와 상당수의 서반아음소를 한국어에서 찾을 수 있는 데에서 오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서반아어 발음 지도에서 산발적으로 영어가 적용되는데, 이보다는 한국어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영어의 tea, two, tuna 가 바로 서반아어의 ti, tu, tuna 가 아니고 미국과 Mexico 접경에 있는 Rio Grande 를 놓고 미국 사람과 Mexico 사람이 발음하는 데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AFKN 에서

1) Emilio A. Llorach 에 의하면 서반아어 모음과 자음의 비율은 47.3%: 57.7%이다. 이것은 이태리어의 47.0%: 53.0%, 포도아어의 46.0%: 54.0%, 불어의 44.0%: 56.0% 보다 높은 것이다.

서반아어 지도하는 장면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교사가 amable (친절한)의 /a/를 중모음화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이 모든 경우, 한국 사람의 발음이 미국 사람보다 서반아어 발음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연히 양국어 발음 체계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음운 체계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조음점 조정으로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며 변이음 차원에서 유사음을 찾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본인이 실제로 한국 학생에게 서반아어 발음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종합 분석해 보고, 그 시정을 위해 어떤 방법이 동원될 수 있으며 또 국어가 어떻게 어떤 범위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이 기회가 한국에서 별로 있지 않은 서반아어 소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I. 서반아어 발음의 일반적인 성격과 문제점

우선 서반아어 발음의 특징적인 성격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앞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서반아어에서 쓰이는 발음이 중남미 대륙의 발음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서반아의 본토내에서만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난다. 면적 50만 km²의 서반아에는 Gallego, Catais, Vasco 방언외에도 군소 방언이 있고 또 지구의 지표면적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중남미대륙만해도 Cuba의 서반아어가 Argentina의 서반아어 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반아어란 지역적인 양상을 초월해 그 사회의 지식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소위 순수한 서반아어를 말한다. 이를테면 음소 /s/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서반아 전 지역에서 똑 같게 조음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상은 서반아의 어느 곳에서 이주했느냐에 따라 중남미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서반아 중앙지대와 북부에서는 설단치경음으로 발음되어 i나 e와 함께 쓰일 때 //에 가까워지며 국어의 "시"에 매우 유사하게 되고, 기타 지역에서는 전설면 치경음으로

/s/ 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 /s/는 지역과 개인 차원에서 음절 말 위치에서 약화 내지 [∅]가 되며, 이런 현상은 서반아 남부와 서남부 그리고 서인도제도 주변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서반아 중앙지대와 북부에서 볼 수 있는 s 와 z 또는 C + e.i (s/θ)²⁾의 대립관계가 예의 서반아 지역과 상당 부분의 중남미 대륙에서 증화되어 /s/로 단일화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현상은 lly(λ/y)³⁾의 혼용으로 사용지역을 Seseo 의 경우보다 더 광범하고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반아 본토내에서 또 서반아와 중남미 대륙 사이에 음소의 순에 있어서 차이가 생길수 있다.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간음	치경음	구개음	연구개음
파열음	p b		t d				k g
마찰음		f		θ	s	j	x
파찰음						tʃ	
비음	m				n	n	
측음					l	λ	
탄음					r 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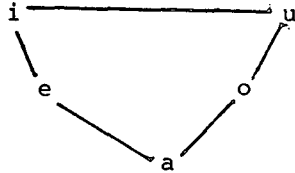
서반아어에는 모음 5개 자음 19개 모두 24개의 음소가 있고 이 24개의 음소는 28개의 기호로 표기된다. rr 와 w를 포함시키는 여부에 따라 표기의 기호도 28개 또는 29개로 된다. 19개의 자음 음소도 위에서 언급한 현상으로 16개 내지 17개로 줄어들기도 하고 x 와 h는 철자상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 h는 무음이고 x는 /k/ (대개의 경우 γ로 발음되지만)와 /s/의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언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ʒ/와 /ʃ/는 서반아어에 없고 v 와 b는 동일음으로 /b/가 된다. 서반아어의 자음은 조음과 음색이 모음보다 덜 일정해 특히 음절말에 올때 인접한 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2) seseo 현상이라고 부른다. 3) yeísmo 라고 부른다.

변화를 하는 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유성파열음의 마찰음화 치경음의 치음, 치간음 구개음화이다. 원칙적으로 비음은 없으나 역시 인접한 음성의 영향을 받아 비음을 내게 되는데 의미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유성음과 무성음의 비율은 3:2 정도로 유성음이 많다. 특히 유성음 /l, r, n/ 와 무성음 /s/가 두드러지게 많이 쓰이며, 가장 적게 쓰이는 자음은 /f/와 /t/ 이다. 어말에는 /d, s, θ, l, r (f 과 중화가 된다) n/ 만이 온다. 이와같이 유성음이 많다는 것과 더불어 보게 될 모음의 특징이 합쳐져 서반아어 발음의 성격을 이룬다.

서반아어의 모음은 기본 모음 5개만을 사용하는 5모음 조직으로 혀의 위치와 높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갖는다:



서반아어의 모음은 짧고 명료하며 정확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장단의 구별이 없이 단모음에 속하고 음색이 정확 명료하다. 조음시 근육이 비교적 긴장되고 그 과정에서 입술의 변화는 없다. 강모음 (a, e, i) 과 약모음 (i, u) 이 모여 2,3중모음을 이룰때에도 hiatus 가 아닌 경우 약모음의 glide 과정에서 모음 하나하나가 뚜렷이 발음되어 국어의 /야/, /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서반아어에서 중모음의 비중은 커서 11개의 이중모음과 3개의 삼중모음이 있으며, 3중모음은 동사의 인칭변화 2인칭복수형에만 있다. 서반아어 모음의 발음에서 약간의 간격 변화는 의의가 없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모음에 있어 개폐의 정도는 인접 음성의 영향에서 오는 것으로 /æ/, /ɔ/ 까지 미치지 않으면 된다.

서반아이어 모음은 통구음으로 비음은 없다. 단지 두 개의 흉비성 자음 사이에 있을 때에 이 자음의 진동 연장으로 비음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음운상의 가치는 없다.

서반아이어 모음은 한국 사람에게서는 친숙한 음성이며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자음을 중심으로 한국 사람이 서반아이어 발음을 배우는 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I. 서반아이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에게 나타나는 발음상의 문제점

제 2 장에서 살펴본 서반아이어 발음의 일반적 개념에 따라서, 한국 사람이 서반아이어 자음을 익히는 데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시정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이 점에 대해 미국의 서어학자 Robert P. Stockwell 을 비롯해 몇 사람의 분류 제시가 있으나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개인적인 난이도 분류를 해 보기로 한다. 우선 한국어 음운 체계에 없든가,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범하는 오류를 제1형이라 하고 다소의 조음 조정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을 제2형이라 하며 끝으로 제3형에는 국어와 서반아이어 양쪽에 다 있고 친근한 음성을 포함시키기로 한다(도표 참조).

제 1 형: /f/ /θ/ 어두의 /l/ 은 국어에 없는 음성들이다. 부득이 영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으나, 대학생의 경우 중 고등학교에서 이 발음을 익히고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θ/는 발음보다는 철자법의 문제로 학생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cocer (오티하다) / coser (박느질하다) 에서 /θ/와 /s/가 변별 기능을 하게되는 것은, 이 두 동사의 철자를 외운 뒤의 이야기가 되는 데 자주 혼동이 온다. 이러한 문제는 2장에서 언급한 /θ/의 지역 변이음을 택하면 해결된다. 이보다 한국 사람이 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 /x/와 란설음 /r/이다. 실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연습과 훈련을 요하는 부분이다. 국어의 의성 "하하"나 명사 "하늘" 등의 어두 /ㅎ/과 강조의 /ㄹ/이 학생들에게서 반아어의 /x/와 /r/의 개념 제시는 되겠지만 특히 어간의 /x/와 /r/은 습사리 습득이 안되고 의미의 변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bajate /'baxate/ "너 내려가라" → /'ba:te/ "탁구 라켓", riño /'riño/ "음욕" → /'ri:õ/ "강", perro /'peño/ "개" → pero /'pero/ "그려나"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된다. 국어의 모음간 /ㅎ/은 약화되거나 다음 모음에 흡수되는 데에서 오는 결과라 하겠다. 국어의 어간 /ㅎ/은 서반아어 어말 /x/수적으로 몇 개 되지 않아 음운 취급을 못 받는다 - 나 중남미 대륙 일부 방언의 h에 유사하다.

제 2 형 : 유성파열음이 완전 어두에 올때 문제가 된다.

brisa /'brisa/ "미풍", gato /'gato/ "고양이" 가 /'prisa/ "급함", /'kato/ "나는 맛을 보다" 로 발음되기 쉽다. 국어의 /ㅂ, ㄷ, ㄱ/의 유성화 연습이 요구되고, 특히 어두의 /d/와 /t/는 처음으로 설단을 국어의 /ㄷ, ㅌ/ 경우보다 앞으로 빼는 훈련이 필요하다. 제 3 형에서 다룰 문제이지만, 이 세 파열음의 모음간과 비음 아닌 Sonorant 뒤에서 나타나는 변이음 β , δ , γ 은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강조되는 소리인데 한국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모음간의 β , δ , γ 이 이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 어두에 오는 /b, d, g/만 조심하면 되겠다.

서반아어의 무성파열음 /p, t, k/는 된소리가 있는 한국사람에게는 큰 짐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 이 세 소리는 근육의 긴장이 따르고 긴장의 순간 성문이 완전히 닫히게 된다. 근육의 긴장 -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 이 국어의 된소리에 미치지 않으나, 다 같이 무기음이라는 데서 국어의 된소리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또 한가지 서반아어의 무성파열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성낭불이나 촛불을 통해서 [p^h, t^h, k^h]에서 기를 빼는 연습이 되는 데 전자의 방법이 더 관

	서반아이 자음	대체 가능 음
제 1 형	f ⁴⁾ θ, s x (특히 어간) ī l	- 스 ㅎ (어두) ㄷ (강조) -
제 2 형	b d g p t k j x (어두) tʃ ʌ, y	ㅂ ㄷ ㄱ ㅍ ㅌ ㅋ (반모음) ㅎ ㅊ (반모음)
제 3 형	β θ γ η s m n l	ㅂ ㄷ ㄱ ㅇ (반침) 스 ㅁ ㄴ ㄹ (음절말)

4) 서어학계에서는 I.P.A. 외에 A.R.F.E. (Spanish Revised Phonetic Alphabet) 와 방언 연구에 보다 정밀한 P.I.L.E.I. 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I.P.A. 기호를 사용하겠다.

편하고 권고할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j/ 는 국어의 반모음보다 혀의 위치가 높아 자칫하면 앞의 음이 구개음화되는 영향을 받아 파찰음화하여 /tʃ/ 로 되기가 쉽고 또 실제로 일부 지방에서는 어두인 경우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의 반모음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ʌ/ 는 특히 어두의 경우 한국사람에게는 힘이 드는 발음이다. 어간의 /ʌ/ 는 국어의 /ㄹ/ 중복에 매우 가까우나 받침 /ㄹ/ 을 약화시키는 기본으로 발음하면 되겠다. 국어에서는 ʌə 음절이 많은 데에 반해 서반아어에서는 ʌə 는 없고 ʌa , ʌo , ʌu 만이 있으며 제2장에서 언급한 현상에 따라 국어의 반모음으로 발음하면 해결이 된다. /tʃ/ 의 경우 국어의 /tʃ/ 에 매우 가까우나 설면이 입천정에 닿도록 혀끝을 약간 뒤로 잡아 당기는 기본으로 발음을 하고 국어의 기를 빼면 된다. 국어의 /ʃ/ 에 가깝다.

제 3 형 : /s/, /m/, /n/ 는 국어의 /ㅅ/, /ㅁ/, /ㄴ/ 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서반아어의 η 은 뒤에 연구개음이 올 때 생기는 것으로 임의적인 것이며, 국어의 /ㅇ/ 받침소리로 충분하다. 음절말 /l/ 은 국어의 경우와 같다.

IV. 결 론

우리는 서반아어와 국어의 자음을 비교하면서 한국사람이 서반아어 발음을 배우는 데에 있어 겪는 여러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한마디로 서반아어는 발음에 있어 한국사람이 쉽게 친숙해질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중남미쪽 발음을 익힐때 더욱 그러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한국사람에게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음성 하나하나의 발성보다는 liaison 에서 오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사람들이 듣기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루 이들의 연습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서반아어의 liaison 에 어떤 규칙같은 것은 없다. 빨리 말하는 과정에서 앞뒤 단어의 같은 소리중 하나가 생략되는 동형

태초에까지 깊숙히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의미! 혼동은 엄두에 두지 않는다. 논란은 있지만 서반아어에는 Juncture 가 없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θ/와 /s/를 중화시킬 때 다음과 같은 경우 문맥을 통해서만 두 문장의 뜻이 구별된다. 즉 /ke'βa'ser/ 는 ¿Qué va a ser? "당신은 무엇이 되려고 합니까?" 와 ¿Qué va a hacer?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의 두 문장을 빨리 발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어느 쪽이 미래의 목표를 말하는지 모르게 된다. 이와같은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취급할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 연구에서는 음성 하나하나의 고립적 발음에만 국한한다.

< 참 고 문 헌 >

- 이 현 복. "말소리". 제 1 호. 대한음성학회, 서울, 1980.
 정 인 섭. "국어음성학연구". 휘문출판사, 서울, 1973.
 허 응. "국어음운학". 정음사, 서울, 1973.
- T. Navarro Tomás. *Manuel de Prononciación Española*. C.S.I.C., Madrid, 1971.
- Emilio Alarcos Llorach. *Fonología Española*. Gredos, Madrid, 1971.
- Antonio Quilis y Joseph A. Fernández. C.S.I.S. Madrid, 1969.
- Samuel Gili Gaya. *Elementos de Fonética General*. Gredos, Madrid, 1966.
- F. Serralta, V. Tusón. *Phonétique Espagnole Pratique*. University de Toulouse, 1970.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아어과 교수>